

성 소 주 일

기도서 P. 293 C해

제1독서(사 도 13, 14. 43-52)
제2독서(묵 시 7, 9. 14-17)
복 음(요 한 10, 27-30)

숲 정 이

발행인	김 환 철
인쇄인	김 봉 회
주간	조 성 호
편집	한 상 갑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의6
전주교구청 내 (전화 ②2935)

□ 강 론



성 소 주 일

김 영 신 신부

초대교회 때 베드로 사도를 중심으로 결혼했던 사도들은 순교를 하셨지만, 유독 요한사도만은 순교를 원치 않으신 주님의 뜻을 나는 항상 가슴 깊이 새겨봅니다. 왜냐하면 요한 사도는 어느사도보다도 주님의 사랑을 받으셨고, 또한 요한사도가 주님께 드리는 사랑에 대해 극치를 이루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요한사도를 그리스도처럼 독신생활을 하면서 일평생 행동으로 주님을 증거하게 하셨고, 주님의 사랑의 크심을 깊이 깨달아 주님의 사랑이 넓고 우리 생활속에서 극치를 이루심을 깨닫게 하는 요한복음 사가가 되게 하셨읍니다.

고도화된 과학문명과 문화의 발달, 반면에 물질만능주의와 배금주의 사상이 팽배한 인류역사 안에 참된 목자로서 오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제2의 그리스도인 목자(사제)로 불러주심은 분명히 특별한 은혜입니다. 초대교회의 요한 사도에게 내리신 축복을 변함없이 현대교회에 까지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주님처럼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길을 따라 평생을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순교이며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대부분은 사제의 독신생활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사제가 가정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신자들을 위해 사목할 수 있느냐고 반문까지 합니다. 그러나 어느날 모교단 목사님이 젊었을 때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사제의 독신제에 대해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하셨습니다. 유신체제하에 한 성직자로서 주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따르려 했을 때, 아내와 자식이 큰 방해가 되고 오히려 교단이 거침돌이 되었다고 털어 놓았습니다.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생활은 바로 사제의 독신제도라는 것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소주일일을 맞이하여 혼탁한 인류역사속에서도 사제들을 더러운 물에 염색되지 않고, 오히려 그 더러운 것을 지워주려는 갠웃 입은 정에부대로 지켜주시는 주님의 축복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사랑의 샘으로서 당신 사랑의 위업을 계승시키고자 여러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사제란 말마디보다 하느님의 오묘하신 신비를 드러내 보이도록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그분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듯 "아들 이사악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음성을, 바칠 수 있는 곳에는 언제나 들려주고 계십니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듣는다."

(창인동 천주교회 주임신부)



多様性的의 멋

맛쓰고 자전거를 탄 모습은 아무리 보아도 비정상이다. 설혹 그 당사자에게 필요성과 편리함이 따른다 하더라도, 그것은 썩커스(목마단)의 한 대목처럼 보일 뿐이다. 필장은 역시 쪽배기에 담아서 먹어야 제맛이지, 투명한 유리그릇이나 스펀 그릇에 담아서 먹으면 운치도 없으려니와 제맛도 안난다.

전주시는 61회 전국체전을 앞두고 「시민 5대 운동」으로 「다섯가지 자랑」을 대형 선전탑에 널리 알리고 있다. 그 내용인즉 〈아담한/고전도시 전주, 숲으로/덜인 도시 전주, 맛의 고향 전주, 인심/좋은 도시 전주, 깨끗한/도시 전주〉이다. 전주의 모습이여야 할 내용들이다. 포기하는 방법이야 어떻든, 전주시민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지니고 지켜가야 할 전통이며 목표라고 여겨진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 아담한 고전도시의 면모 부각에는 문제가 있는듯 싶다. 큰길가의 가게문을 알미늄 샷시로 바꾸고 샷타를 다는 일이다. 돈이 넉넉하다면야 또 별문제가 아니라고 여겨 수도 있다. 그렇지 못한데서 문제가 있다. 또 아무리 전주-군산 도로변이라 하지만 시골에 가까운 전주 번두리의 목공소가 알미늄 샷시 유리문으로 꾸며져 있는데는 실소를 금할 길이 없다. 역시 목공소의 문은 나무가 제격이 아닐까? 운치가 없어 보인다. 아담한 고전도시라면 역시 운치가 제일 아닐까 싶다.

체전준비를 위한 도로변 건물들의 단장을 보면 획일화(劃一化)의 냄새가 난다. 획일화는 군인이나 경찰의 모습이다. 더 심하게 표현하면 독재자들이 좋아하는 모습이다. 획일화를 따르다 보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부작용이 있을 수 밖에 없다. 근본적인 즐거움을 해치지 않는 범위안에서의 다양성이 바로 민주주의의, 멋이다.

숲 정 이 산책



주님의 뒤를 따르시오



司祭 — 그 삶

김 준 호 신부

「사제란, 서품식—그 하나 때문만도 모든 인간적인 소망과 의의로서 파괴할 수 없는 새로운 질서속에 서있게 된다.」

그래서 그런건가?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떤 인간적인 소망을 요구할 수 없다는게 사제의 길이런가?

신부가 된지 이제 갓 3년생이 무슨 언(言)이 있을까마는, 성소주일을 맞은 한 젊은 사제로써의 마음은 웬지 서품받던 그날보다 자신을 되새겨보고 싶은 마음이 깊숙히 절실해 진다.

“나는 무엇 때문에 10여년이라는 긴 세월을 신학교에서 지냈느냐?”—신학교 졸업할 때, 마지막으로 물으시던 확장 신부님 말씀이. —

“당신은 무엇 때문에 평생의 긴 세월을 신부로써 지냈습니까?”

“당신은 이제껏의 당신 삶에 대한 가치를 어디서 찾으시렵니까? 늙어서도 그렇듯, 그렇게만 살으셨어도 후회안나던가요? 평생을 그렇게 살만한 가치가 과연 있던가요?”

얼마전에 돌아가셨던 노사제 이철연신부님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면서 차갑게 식어가는 빈 껍질의 얼굴을 두손으로 감싸고 왈카 치미는 눈물을 참으며 나는 자꾸만 속으로 물고 있었다.

그래도 짙마른 두손으로 부르르 떠시면서 애긋게 십자가만을 꼬옥 움켜 쥐시는 모습을 볼 때, — “모든 것이 그러니까 이것조차도 다 하느님의 은총인걸...” 하던 <어느 시골 신부의 일기>의 마지막 중얼거림이 생각났다.

과연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의 특별한 일을 위해서 택했던 사람을 절대로 버리시지는 않으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당신을 위한 희생자의 댓가 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당신의 구원사업을 위해 쓰시고 싶어하는 도구로써 선택되어진 삶을 그렇게 사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인간적인 소망과 권리마저도 스스로 포기해야 하며 오히려 착한 목자로서의 사랑을 하느님의 형제들에게 한껏 다 내어주고 마지막에 그 사랑 자체가신 하느님에게 기쁜 마음으로 자신을 돌려 보내는 삶—이것이 사제로서의 한 생이 아니런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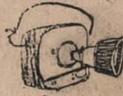
사제란 무엇인가?
“나는 모든 곁에 있어서 자유로운 사람이지만, 보다 많은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나는 모든 이의 종이 되었노라(코린전 9:19—) 바오로 사도의 이 신념에 찬 의침, 그이상 무슨 말이 더 필요하진가?

주님은 이 순간도 조용한 목소리로 우리를 부르신다.
성소주일을 마치고 나서 주님의 부르시는 그 목소리를 다시 확인하고 한 젊은 사제로서, 뜨겁게 결심을 다시 해본다.

● **교구주최 성소자 모임 및 행사**

1. 일 시 : 4월 27일(성소주일) 오후 2시~5시
2. 장 소 : 가톨릭센터 강당, 회의실
3. 참가대상 : 성소에 관심있는 남녀 고등학생, 대학생, 일반
4. 행사개요 : 공동미사, 특강과 성직, 수도자들과의 좌담 및 그룹별 상담
5. 행사지도 : 교구 사무처 신부, 각 수도회 대표

※ 성소자 발굴을 위해 관심있는 사람들의 많은 참여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총의 하루

맹 마리아 수녀

문득 하사된 오늘이 감사롭게 느껴진다.
삶 자체가 너의 선물임을 새롭게 인식하며 뒤로한 날들 안에서 구원의 섭리를 체득한다.

실로 슬한 날들이 흘렀다. 난무한 현실속에 진실마저 탈바꿈 한다고 생각되던 날들이 있었다. 까마득한 옛일 같기도 하고 어제의 일 같기도 하다.

오늘을 위하여 어제가 반드시 필요 했음을 인지하지만, 삶이란 현실에 그 의미를 두는 것이라고 믿기에 순간의 성실을 재추한다.

뜻밖에 주어지는 사건과 상황들, 그것이 비록 자신이 추구하는 바와 다른것 이었을지라도 너의 선물이요, 명령임을 깨달았을 때에는 감사로이 순응할 수 밖에 없었다.

너의 품에 묻혀 보다 순박하게 살고픈 마음, 무한히도 아름다우신 분께 자신을 온전히 내어 드리고픈 마음뿐이다. 그러나 부족함이 없으신 분, 만물을 이미 소유하고 계신 그 분께 가난한 자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랴! 그것은 전신을 담은 사랑과 충실이요, 무한히 이웃을 용서하고 받아 들이는 일 이리라.

인간 각자는 실로 어쩔것케 독립된 존재들이다.

결코 혼자일 수 없으며 함께 하나일 수도 없다. 따라서 스스로를 개척하고 남을 받아 들인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요, 그렇기에 우리는 결코 한가롭지 못한 고독으로부터 헤어날 수가 없는 것이다.

너를 잉태하시던 날의 어머니님 처럼, 다소곳이, 또한 과감하게 응답 하리라!

구원적 사랑으로 모두를 받아 들이리라고, 순교적 자세로 모든 것을 인내하리라고, 또한 자녀된 기쁨으로 아버지 성의에 최선을 다 하리라.

너의 음성을 듣던날 이후, 이 몸을 애태우는 단 하나의 소망, 그것은 너의 부르심에 응답한 행복에의 참여! 즉 보다 순박하고 진실한, 사랑스럽고 성실한 너의 딸이 되는 것이요, 세상 모든 이의 미덥고 고마운 이웃이 되어 주는 일이다.

<성체회 수녀원>

한 생을 오로지 하느님께 향한 두꺼운 신념으로 주어진 사제 직무에 충실하게 살면서 남은 생의 모두를 사제로서 부끄럼 없는 삶으로 진정 아낌없이 살고픈 욕심에 게으름이 없어야지...

가진바도 없읍니다.
드릴 바도 없읍니다.

다만, 가질 바 모두를 당신께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시인의 노래처럼...

(교구청 교육·홍보실장)

□ 교우여러분의 가정에 소량도 신속 배달하겠습니다

한 미 주 유 소

전화 ② 5 6 6 9 번
주 최 남 수(아블로니오)

전주시 효자동 1가 283번지

□ 4·19 스무두에 붙여

다시 4월을 생각한다

나 중 윤 (스테파노)

“4월은 잔인한 달/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추억과 욕정을 뒤섞고/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운다.”

영국의 시인 ‘엘리엇’은 ‘황무지’에서 이렇게 절규했다.

과연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인가? 우리에게 4월은 일년중 그 어느달보다 많은 의미를 주고 있다. 우선 진 엄동설한이 끝나고 봄이 시작된다는 의미에서, 또한 4월은 12년 독재에 항거하고 이땅에 참 민주주의를 외친 의미에서, 깊은 감명을 주는 달이다.

아직도 그날의 함성이 귓가에 들려오고, 자랑스런 넋들이 홀린 송고한 피가 선지빛 그대로 지워지지 않는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4월을 생각해 본다.

자유! 정의! 민주주의!

인간이 갖고자 하는 최고의 眞·善·美다! 그러나 이것이 폭정에 짓밟히고 독재에 유린될 때 인간은 불행하게 된다. 이 불행을 극복 하고자 함은, 인간의 본능이요, 정당한 주장이다.

어떠한 위선도, 어떠한 선동도, 한 때 인간의 이성을 흐리게 할 수는 있어도,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며, 진실은 필연코 밝혀지게 역사의 순리다.

4월의 함성은 민족의 양심이었다. 정당한 민의의 대변이었다. 조국의 민주 제단위에 젊음을 바친 거룩한 희생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20년동안, 4월의 함성을 잊은채 더 어두운 시대를 살아야 했다. 이것은 분명 역사의 간헐적(間歇的) 반복은 아니다. 의지가 약할 때, 유혹은 기승을 부리는 법이다. 4월의 외침은, 이 나라 역사에 신기원을 이룩했다. 그러나 안타 하나로 야구가 승리하지 못하듯, 주저하기만 하던 나약한 무리의 끝없는 욕망이, 끝내 긴 암운으로 역사를 유혹하고 말았다.

이제 다시, 역사는 우리에게 4월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고 있다. 한 시대의 암운은 확실히 그 막을 내렸다. 그렇다고 우리의 내일이 반드시 낙관적인건 아니다. 하늘은 우리에게 한번 더 선택의 기회를 주었을 뿐, 우리의 내일을 약속한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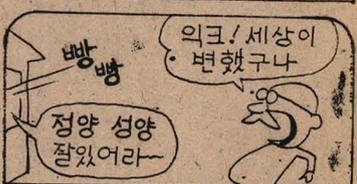
역사가 준 기회를 바르게 선택하지 못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4월의 정신을 유보해야 한다. 하나의 계기가 있다해서 반드시 우리의 길이 순탄한 것은 아니다. 더 많은 지혜와 용기를 요구하는 것이다.

스무두에 되는 4·19! 그 어느 때 보다, 4월의 의미를 깊이 생각할 때다. 20년전과 똑같은 우리 현실에서, 역사는 누구나 균등한 기회를 준다. 그러나 이것을 선용하고 안하고는 그 시대의 자유다.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역사가 준 기회를 선용하지 못할 때, 역사는 무서운 보복을 했다는 라스키 교수의 지적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185위의 연명들이 잠들고 있는 수유리 묘지. 한송이의 꽃을 드리기 보다는, 한장의 스냅을 위해 목숨이나 하는 절없는 ㅅ(?)는 오히려 그 분들을 욕되게 한다. 냉철한 이성과, 타협 없는 신념, 그리고 주저없는 용기로 슬기로운 선택을 해야 한다. 지난 20년 19년의 의미없는 행사보다는 의미있는 결의로 우리의 길을 택해야 한다. 이것이 그 분들을 위로하고, 역사에 보답하는 우리의 책임이다.

(김계 천주교회)

요심이 (352) 김병오



베델성서 연구반 모집
 모집인원 : 40명
 접수마감 : 4월 28일까지
 면 점 : 4월 29일 ~ 30일
 개 강 : 5월 6일 오후 7시 30분
 센터 강당
 원 서 : 센타 사무실에 준비되어 있음

표구, 서화, 병풍, 수예, 발석, 보로

문화양행

오 중 원 (아오스딩)
 팔달로 주택은행 맞은편 ③3170
 ☆교우님들 자주 들리세요

건축용페인트, 기와용락카, 카-슈칠, 호마이카, 락카, 절착제, 청단 안료, 왁스, 금분, 은분, 가구재료 도장공사 청부(상당)

현대 페인트사

청자표 현대페인트(주)
 전주 직매점
 주 오영원 (바오로) · 김명환 (아오스딩)
 전동 2가69(성모병원앞) ②2377번

*** 직원채용 공고**

인 원 : 남자 ○명
 자 격 : 병역필 면제 고졸이상자
 부기 수산 3급이상 자격
 증 소지자
 연령 30세 이하

제출서류 : 이력서, 친원증명서자1통
 자격증 사본 1통

시험과목 : 일반상식, 실기, 면접
 접수마감 : 80. 5. 2. 오후 6시
 시험일시 : 80. 5. 3. 오후 6시
 접 수 처 : 전주 파티마신협 사무실
 (2519)

※ 자세한 내용은 문의 바람

전주 파티마 신용협동조합

* 교우 여러분에게는 특별히 모시겠습니다 *

시보당 금방

(금·은·보석·각국 시계)
 주 이 창 수 (바오로)
 전주 남문 옆
 전화 ② 8 1 8 8 (자 ⑥0369)

금·은·보석·고급시계는
 전주 남문 옆 교우집으로 오세요

미성당시계점

장 금 태 (방지거)
 ② 2-3301 (자택 2-8548)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1. 성소주일 성체수녀원 개방...4월27일 오후 2시~4시까지
2. 레지오 마리에 단장 2차피정...4월 28일(월) 오후 2시~29일(화), 가톨릭센터에서
3. 성모 기사회 모임...5월 3일 오후 2시, 파티마성당에서
※ 오기순 신부님의 특별강론 있습니다.
4. 성 프란치스코 형제회 1일피정...5월 5일 오전 9시~오후 5시, 노송동 천주교회
대상-전지구 형제회원 전원
5. 79년도 중·고등학교 교리 경시대회 입상자 장학금 전달...4월 27일 오후 2시에, 교구청 사무국으로 나오
세요. (중 5명, 고 5명, 장학증서 지참 바랍니다)
6. 제 4 지구 사도회장 회의...5월 6일 오후 8시, 중앙성당에서
7. 남자 켈 본부의 공연...5월 4일(일) 오후 2시, 중앙성당, 참가비-500원
- 이수현(보나벤투라) 신부님 서독고포 사목차 출국...30일, 신부님의 건강과 전도축복을 빕니다
- 베릴성서 연구반 계속 모집합니다...4월28일(월)까지 가톨릭센터 사무실 ※3면 광고 참조 바람
준비-본인이 기록한 소정의 원서와 증명사진 2매, 강사-김준호 신부(교구청 홍보실장)
- 이재후 신부 아버지 1주기...4월 29일 오후 9시 미사, 자택에서(이리시 남중동 남중학교 앞)
※ 신자들의 많은 기도 바랍니다

(중앙)

전화 3651 3874

주임 신부 문정현
보좌 신부 정태영
사도 회장 김병구

1. 사도회 월례회 : 5월 4일(일) 다음주 공식미사후
2. 켈들의 오후 : 남자 켈본부의 공연
5월 4일(일) 오후 2시 중앙성당 참가비 : 500원
3. 사무실 도서함이 비었습니다 : 속히 반납해 주세요
4. 중앙 신용협동조합 가입 희망자
주민등록증, 인장 지참하시어 일요일 9시 30분~12시
30분 까지 가입을 받고 있습니다

□ 지난주 봉헌금 : 342, 305원

(노송동)

전화 7032

주임 신부 김원준
보좌 신부 나중
사도 회장 박준

1. 사도회 월례회 : 오늘 미사후
2. 형제회 월례회 : 26일(토) 노인미사후
3. 성서 강의 : 매주(월, 화) 저녁 8시~9시까지 성서(신,
구약 합본)와 필기도구를 가지고 오세요
4. 성령 기도회 : 매주(금) 오후 2시~4시까지
성령 세미나를 받으신 분은 꼭 참석하십시오
5. 금주의 성경읽기 : 신약의 로마서 전체
6. 교무금 납부의 날 : 오늘은 교무금 납부의 날입니다
작년도 교무금을 못내신 분은 속히 완납 바람
7. 학생미사 시간 변경 : 매주(토) 18시 이변주 부터

□ 지난주 봉헌금 : 169, 325원

(덕진)

전화 2182

주임 신부 서석오
보좌 신부 조정양
사도 회장 양상열

1. 진복회 임시총회 : 27일
2. 미사시간 안내 : 오전 6시에서 → 5시 30분
3. 반석회 회합일 변경 : 매월 첫째주일 공식미사 후
매월 셋째주 토요일 저녁 8시 30분
4. 사도회 월례회 : 5월 첫째주-구역장님, 반장님, 사도
회 임원님 한분도 빠질 없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5. 학생회 공소·분당 체육대회 : 5월 5일, 덕진중학교

□ 지난주 봉헌금 : 246, 750원

(복자)

전화 5238

주임 신부 김종택
보좌 신부 박성호
사도 회장 조성호

- ※ 5월은 성모성월 국가 안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1. 사도회 월례회 : 오늘 공식미사 후
 2. 대학생활 : 오늘 오후 6시 신앙강좌-“오늘의 현실과
신앙인(젊은이)의 자세” 초청연사-김준호 신부님
(대학생들의 적극 협조 바람)
 3. J.O.C 여자회원 모집 : 보좌신부님께 접수
 4. 소풍 : 학생회-5월 4일(일) 9시 미사후(도시락 지참)
주일학교-5월 5일(월) 오전 10시까지 성당에 집합
(도시락 지참)
 5. 주일학교 : 생활기록부와 평일미사에 협조 바람
 6. 첫 철레 7 : 5월 3일(토) 부녀회 월례회 : 5월 7일(수)
 7. 약속하신 숲정이 성당 신축기금 속히 완납 요망
 8. 봉헌금 미수가 없도록 완납 바람
 9. 축 혼인 : 다음주 12시 복자성당
김종길신부님 제 중대군, 이 정우씨 차녀 쟈마양

□ 지난주 봉헌금 : 251, 340원

(서학동)

전화 2276

주임 신부 김병환
사도 회장 한철수

1. 성소주일 행사 : 중·고생 광주 대건 신학대학 방문
(버스 대절-오전 7시 성당에서 출발)
2. 어머니회 : 공식미사 후
3. 울드레아 : 29일 저녁 8시
4. 사도회 : 다음주 공식미사 후
5. 예비신자 교리 : 부녀회(일요일 공식미사 후)
지성인(매주 금요일 저녁 8시)
6. 분당 자체내 공개설 : 상록수 셀, 5월 4일 오후 3시
7. 다음주 전례담당 : 독서-한형수, 조동근
신자들의 기도-김한기, 차상열

□ 지난주 봉헌금 : 145, 512원 교무금 : 23, 000원

(숲정이)

전화 7366

주임 신부 이대권
사도 회장 이강호

1. 사도회 월례회 : 5월 4일 공식미사 후
2. 누깰다 부녀회 : 5월 3일(토요일)
3. 청년회 월례회 : 5월 1일 성서 지참
4. 성소주일 모임 및 행사 : 오늘 오후 2시~5시,
가톨릭센터 강당, 남녀 고등·대학생·일반 참석 바람
5. 신축성당 준공에 지장이 없도록 미납된 신축기금 속
히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숲정이 분당 신축 : 상가 매차 희망자는 연락 바람
7. 신축기금 내주신 분 : 전동성당 신일액중(93, 500원)
중앙성당 신일액중(233, 500원), 덕진분당 신일액중
(51, 000원), 익명(50만원)

□ 지난주 봉헌금 : 240, 520원

(전동)

전화 3222

주임 신부 김병기
보좌 신부 김유석
사도 회장 유석중

1. 글라라 형제회 : 오후 1시 30분
2. 주일학교 소식
① 자모회 월례회-공식미사 후 (사제관)
② 교과서 판매중, 꼭 사주세요(450원)
③ 미 취학 아동 유치반 모집
3. 5월 8-9일 광주 피정 : 어머니 성가대, 성가정 회원
회비 : 10, 000원(회원 아닌분 회당자 신청은 사무실에
4. 사순절 설미 : 불우 형제 23명에게 전달하였습니다

□ 지난주 봉헌금 : 370, 150원

(파티마)

전화 0915

주임 신부 김영일
사도 회장 채수현

1. 사도회 월례회 : 다음주 저녁미사 후
2. 부녀회 월례회 : 오늘 공식미사 후
3. 오늘 3시 미사 없음니다 : 성소 주일이기 때문에 중·
고생 센터 성소를 위한 모임에 참석하기 때문입니다
4. 가정방문 : 29일
5. 유아세례 : 오늘 오후 3시
6. 성모기사회 : 오후 2시 분당, 신자들의 많은 참석 바람

□ 지난주 봉헌금 : 95, 785원 교무금 : 66, 000원
어린이 헌금 : 2, 690원

축! 결혼 (오늘 12시, 복자성당)
신랑 김병호(베드로, 김성원씨 장남)
신부 김선태(썬 마, 김종면씨 장녀)